

광양시 “행복 아파트 만들기 지원합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24일까지 접수 교육형·화합형 등 4개 분야 주민 소규모 활동 지원

광양시가 이웃간 소통하는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에 적극 나서기로 해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광양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아파트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아파트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공모를 접수받는다”고 4일 밝혔다. 아파트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은 층간

소음, 주차분쟁 등 아파트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해결하는 공동체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공모분야는 ▲교육·보육형(공동육아, 자녀성품교육, 공동학습방, 작은도서관 등) ▲사회봉사형(자율방범 및 안전봉사 활동, 독거노인 밥상나눔, 환경정화 캠페인 등) ▲주민화합형(주민축제, 경로잔치,

북카페, 마을신문 발간 등) ▲생활개선형(서로 인사하기, 안부문기, 층간소음 줄이기 등) 총 4개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파트 주민 5인 이상의 마을공동체 또는 비영리단체로 오는 24일까지 광양시의회 동 5층 전략정책담당관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한 서류는 현지조사와 6월께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소규모활동지원 2개소에 각 350만원, 중규모활동지원 1개소에

4000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http://www.gwangyang.go.kr>)와 전략정책담당관 지역공동체팀(061-797-19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운영학 전략정책담당관은 “최근 층간소음이나 고독사 등 사회적 무관심이 이슈화 되고 있는 시점에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고 이웃 간에 소통할 수 있는 행복 아파트를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시·주택금융공사 순천지사 주거 안정 지원 업무협약



광양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정된 주거와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 순천지사(지사장 임수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지속가능한 사회적 복지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가가 보증하는 노후 생활지원 상품인 ‘주택연금’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자금 특별보증’ 등의 홍보에 필요한 협력적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 주민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이며, 전세자금 특별보증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신용평가를 생각하고 은행 대출금 100%를 보증 지원하는 제도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시민의 행복과 노후가 보장되고 저소득 주민들에게 안정된 주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 순천지사에서는 광양시사랑나눔 복지재단에 후원금 100만원을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에 지정기탁 했으며, 앞서 지난 3월에는 광양시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봄바람 타고 시티·야경투어...가족에 충전하세요

광양시 구봉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광양만 야경. <광양시 제공>

장미공원·구봉산 전망대 등 6~27일 가족에 충전 투어

광양시는 “봄 여행기간과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주요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광양 가족에 충전 투어’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투어는 주말을 이용해 오후 1시 30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 시티투어와 야경투어를 결합한 형태로 운영되며, 광양시를 방문하는 가족 단위 관광객은 물론 광

양시에 거주하는 시민도 참여할 수 있다. 투어 버스는 광양시 관광안내소와 광양읍사무소를 출발해 광양을 서천면에서 각 양각색의 장미로 꾸며진 장미공원을 시작으로, 경관 관광의 메카인 구봉산 전망대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중대교를 해상보도교를 방문한다. 이어 운동주 유교보존 정병옥 가족과 회타운이 준비한 망덕포구를 거쳐 느림이 골의 환상적인 야경을 감상하는 코스로 운영된다. 광양 가족에 충전 투어는 성인 3000원, 장애인·군인·경로자·청소년·어린이는

1500원으로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 투어 1일 전까지 광양시 관광안내소(061-797-3333)와 시청 관광과(061-797-2857)로 신청하면 된다. 김문수 광양시 관광과장은 “이번 투어로 가족 단위 방문객이 흐드러진 장미와 환상적인 별빛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고 마음껏 사랑을 나누며 삶의 활력을 충전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광양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테마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올해 여성친화도시 지정 목표 간부공무원 교육

광양시가 올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목표표로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4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간부공무원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이해’에 대한 정책형성 간부공무원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젠더&공동체 대표 오미란 박사를 초청해 여성친화도시의 이해와 추진방향 등 정책에 대한 우수사례 등

을 청취했다. ‘여성친화도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여성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정책 전반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고르게 혜택 받을 수 있는 미래 친화적 도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이번 교육에서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고, 편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모든 시책수립 시 성인지 관점을 고려해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로중 광양시 사회복지과장은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의 이해를 돕고자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이번 교육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간부 공무원을 양성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한 발짝 다가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매실 수확 일손 걱정 덜어드려요”

市 앞선창구 개설...유관기관·기업 등과 농가 돕기

광양시가 영농철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한달간 공직자,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등과 함께 매실수확 일손 돕기에 본격 나선다.

광양시 특화작목인 매실은 농작업이 기계화 된 일반농사에 비해 직접 손으로 수확해야해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

시는 오는 10일까지 농업지원과, 읍면동, 지역농협에 일손돕기 앞선창구를 개설해 신청을 받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연계해 추진해 된다.

이번 매실수확 일손 돕기는 각종 자연·농업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

가와 노약자, 부녀자, 기초수급대상자, 국가유공자 등을 우선 지원한다.

특히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일손을 돕는 기관과 단체에서 직접 도시락과 작업도구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농가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상범 광양시 친환경농업팀장은 “농촌 일손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기관, 단체와 함께 일손 돕기에 나서겠다”며 “올해도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진월 외망·월길 재해위험지구 정비 국비 67억 추가 확보

광양시는 “진월 외망·월길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국비 67억원(외망 42억, 월길 25억)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진월 외망·월길 마을은 섬진강 하류부에 있으며, 집중호우와 광양만 만조가 겹칠 경우 주택과 시설하우스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취약지구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재해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나’등급 침수 위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 받은 상태다.

광양시는 올해 실시설계비 13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지역 주민들의 일괄 보상 요구 등 민원해소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현복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전남도와 국민안전처를 방문하고 추가 지원을 요청해왔다.

그 결과 총 사업비 147억원(외망 94억 원, 월길 53억 원)중 국비 미확보분 67억원이 추가 확보되는 성과를 냈다. 광양시는 이달부터 보상 협의와 공사 추진해 오는 12월까지 정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올해 실시설계비 13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지역 주민들의 일괄 보상 요구 등 민원해소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현복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전남도와 국민안전처를 방문하고 추가 지원을 요청해왔다.

그 결과 총 사업비 147억원(외망 94억 원, 월길 53억 원)중 국비 미확보분 67억원이 추가 확보되는 성과를 냈다. 광양시는 이달부터 보상 협의와 공사 추진해 오는 12월까지 정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올해 실시설계비 13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지역 주민들의 일괄 보상 요구 등 민원해소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현복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전남도와 국민안전처를 방문하고 추가 지원을 요청해왔다.

광양시는 올해 실시설계비 13억원을



광양 임산물생산자협, 서울 강서구 시장도매인연합회와 결연

광양시 임산물생산자연합회(회장 김정현)는 “최근 백운산 프리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장도매인연합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매결연은 지역 임산물의 고령고객 확보와 체계적인 판촉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정현복 광양시장과 정인하 국회의원, 이기연 시의원, 강대유 산림조합장, 김영배 원예농협장, (사)한국시장도매인발전협의회(회장 임안

상),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한국농식품6차산업협회, 강서시장 서부청과 등 9개청과 대표, (사)서울강서구새마을부녀회, 광양 임산물생산자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김정현 광양시 임산물생산자연합회장은 “이번 자매결연으로 지속적인 도농교류를 통해 맞춤형 임산물의 생산과 구매로 상호간 이익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삼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시술 전

시술 후

시술 전

시술 후

대산 종합 인테리어 사업부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짐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심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010-8628-0482

광주광역시 북구 증음동 373-14번지 1층 광주역 뒤 증음삼거리 부근